DOI : 10.5392/JKCA.2011.11.7.100

텔레비전 뉴스 영상의 구조적 요소와 주제연관성 시계열 분석

Time Analysis of Structural Element and Theme Association of Television News Imagery

박덕춘
동서대학교 영상매스컴학부

Dug-Chun Park(parkdc2521@hanmail.net)

요약

본 논문은 텔레비전 뉴스에 있어서 '현장성'과 '사실성'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뉴스 영상의 구조적 요소와 주제연관성이 시대적 배경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함의가 무엇인지 살펴본 내용연구이다.

기존의 텔레비전 뉴스에 관한 여러 연구들은 대부분 동시대의 뉴스를 대상으로 한 횡적 연구에 집중하여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종적 연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87년부터, 2007년까지 MBC뉴스데스크에서 방송된 뉴스를 대상으로, 5년 간격으로 체계적 무선표집방법을 통해 추출한 총 729개 아이템의 11,945개의 샷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1987년과 2007년의 텔레비전 뉴스 영상에는1992년과 2002년에 비해 '현장성'과 '사실성'을 충실히 반영한 '사운드바이트'와 '사건화면', 그리고 주제와의 연관성이 높은 '직접연관' 화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1997년에는 이들 요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현장성'과 '사실성' 측면에서 취약한 '로케이션 화면', '구성화면' '자료화면', 그리고 '간접연관'과 '축어적 연관' 화면의 비중이 크게 나타남으로써, 현실기반의 뉴스 보도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 중심어 : | 텔레비전 뉴스 | 영상분석 | 구조적 요소 | 주제연관성 |

Abstract

This thesis is a content analysis on whether the proportion of structural element and theme association of television news imagery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on what it means, which can be the index of scene-based and realistic report.

Most researches of television news are horizontal studies of the same period, making light of vertical studies reflecting the change of ag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729 items composed of 11,945 shots extracted from MBC Newsdesk from 1987, to 2007, the samples of which were extracted by systematic random sampling with five years' interval.

This content analysis found out that there was high proportion of scene-based and realistic report such as 'sound-bite', 'event footage', 'direct matching' in the year 1987, 2007, and high proportion of 'corroboration shot', 'file footage', 'indirect reference', 'literal matching only' in the year 1997, which revealed the fact that reality-based report had not been faithfully accomplished in 1997.

■ keyword : | Television News | Imagery Analysis | Structural Element | Theme Association |

접수번호 : #110427-002
접수일자 : 2011년 04월 27일
심사완료일 : 2011년 06월 29일
교신저자 : 박덕춘, e-mail : parkdc2521@hanmail.net

I. 서론

문명의 발달과 함께 사람들의 활동영역은 그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했던 원시 농경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지역 사회를 벗어나기 어려웠으며,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점차 사람들의 활동 영역과 관심영역이 지역사회를 넘어, 국제사회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교통수단이 발달하더라도 한 개인은 동시에 여러 지역에 존재할 수 없다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자신의 활동영역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미디어에 의존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소식에 접하게 된다.

현대사회에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수용자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에서 텔레비전은 시청자들의 의제뿐만 아니라 신문, 인터넷 등 타 매체의 의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여론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신뢰성 있고, 영향력 있는 유익한 매체로 평가받고 있다[1].

텔레비전이 수용자의 인식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반영하듯, TV뉴스에 관한 연구들은 의제설정이나 점화효과와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 효과에 관한 연구, 뉴스의 소비 패턴 및 신뢰도 연구 등 다양한 주제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청각 매체인 텔레비전의 뉴스에서는 시각적 요소인 영상이 수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2][3]에도 불구하고, 언어텍스트를 중심으로 혹은 영상과 언어텍스트의 수용자 효과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그나마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텔레비전 뉴스의 영상 연구들도 대부분 연구 당시의 뉴스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횡적인 연구가 대부분이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종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텔레비전 뉴스의 '현장성'과 '사실성'의 근거가 되는 영상의 '구조적 요소'와 '주제연관성' 정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 내용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텔레비전 뉴스영상의 구조적 요소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텔레비전 뉴스의 영상은 소위 '텔레비주엘러티(televisuality)'라고 할 만큼 과도한 그래픽 효과가 도입되고, 영상과 음향이 재편집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4].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할 텔레비전 뉴스에서 부적절한 시각적 자료의 제시는 수용자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5]. 그러나 텔레비전 뉴스 제작진들은 매우 예측가능하고 통상적인 장소나 인물을 촬영하여 이를 시각적 부분품(segment)으로 이용한다. 그들은 일단 뉴스의 주제가 결정되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각물을 구성하며, 이러한 시각물이 구성되는 전략은 이미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현실을 반영하는 영상이 뉴스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 뉴스의 내용에 따라서 영상이 구성된다는 것이다[6].

멘델슨(Mendelson, 2001)[7]은 텔레비전의 영상은 그 속성상 관습적인 것이며, 기자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기존의 인지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주제에 맞게 해석하기 쉽도록 편집하며, 이러한 영상을 '관습적인 영상(Conventional Imagery)'이라고 불렀다.

텔레비전 기자들은 실제 사건현장을 촬영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관례화된 샷과 편집기법에 의존하여, 시각적으로 흥미있는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으며[8], 최근에는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컴퓨터 그래픽 화면 등을 통해 목격하지 않은 사건의 장면을 재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텔레비전 뉴스는 실제 사건의 전달이라기 보다는 시각적 부분품과 사운드바이트를 이용하여 하나의 내러티브를 만드는 구성작업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뉴스와 현실의 관계가 아니라, 영상과 텍스트의 관계이며, 이 두가지 요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현실을 반영하는가 하는 점이다[8].

한편 미국의 텔레비전 뉴스 영상을 분석한 할린(Hallin)[9]은 사운드바이트의 길이가 1968년 43초에서 1988년에는 9초로 줄어들었음을 지적하면서, 텔레비전 뉴스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수용자를 능동적으로 중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텔레비전 저널리스트들이 주장하는 '현장성'과 '사실성'이라는 특성과 모순되는 부분이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현장성'과 '사실성'을 잘 나타내주는 영상의 '구조적 요소'에 대한 분석은 영상텍스트가 실재 사건과 현실에 바탕을 둔 사실적인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실재 사건이나 현실과 관련성이 적은 관행적인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텔레비전 뉴스영상의 구조적 요소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유목으로 나눌 수 있다[10].

(1) 사운드바이트(sound bite): 공식 인터뷰, 비공식 인터뷰, 공식 발표, 현장음 등을 기록한 화면.
(2) 사건화면(event footage): 실제 발생한 사건현장을 기록한 화면.
(3) 구성화면(corroboration shot): 실제 사건 현장의 화면이 없거나 뉴스의 내용상 시각화가 불가능할 경우 제시되는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등과 같은 화면.
(4) 로케이션샷(location shot):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 사물 등을 상징하기 위해 건축물의 외관, 깃발, 명패 등을 보여주는 화면.
(5) 스탠드업(stand up): 기자가 화면상에 등장하는 화면
(6) 자료화면(file footage): 실제 사건 현장의 화면이 없을 경우 사용되는, 관련 사건이나 인물의 과거 화면.

2. 텔레비전 뉴스영상의 주제연관성

텔레비전 뉴스에서 영상텍스트의 내용이 청각적으로 전달되는 언어텍스트의 내용과 관련성이 없거나 적은 경우, 수용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려 메시지의 기억과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1].

따라서 뉴스 수용자들이 뉴스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상텍스트와 언어텍스트가 의미있는 서사구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호관련성이 높아야 한다[12].

그러나 실제 텔레비전 뉴스에서 영상텍스트와 언어텍스트의 상호연관성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시각적 채널인 영상텍스트가 청각적 채널인 언어텍스트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또한 극히 미미하며, 오히려 상반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13].

영상텍스트와 언어텍스트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는 의미결정에 있어서의 힘의 역학이다. 시청각 매체에서 영상텍스트는 언어텍스트와 동시에 전달되는데, 이때 기호로서의 영상텍스트는 강력한 현실재현성, 보편성, 직접성 등으로 언어텍스트를 압도한다.

그러나 영상텍스트의 한계는 문자적 읽기와 해석을 기다린다는 점이다[13]. 이러한 영상텍스트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뉴스 영상에 포함된 현실의 요소(element of reality)는 사건에 대한 '현실적(realistic)'인 묘사를 가능하게 하며, 뉴스의 신뢰성을 높인다[11].

이런 방식으로 텔레비전 뉴스 영상이 외적으로 맺고 있는 현실성 기반이 영상과 현실세계(영상이 표상하고 있는 사건과 인물)와의 관계라면, 내적으로 맺고 있는 현실성 기반은 뉴스 텍스트 내에서의 영상과 언어 텍스트의 상호연관성, 즉 '주제연관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텔레비전 뉴스영상의 '주제연관성'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유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10].

(1) 직접적 연관(Direct Matching)
영상텍스트와 언어텍스트가 개념적,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경우.
(예; 대부분의 사운드바이트, 사건화면은 이 유형에 속함.)

(2) 축어적 연관(Literal Matching Only)
영상텍스트가 언어텍스트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그대로 표현하는 경우.
(예; 소리나는 대로 화면에 표현되는 영상 혹은 CG 자막들)

(3) 간접적 연관(Indirect Reference)

영상텍스트가 언어텍스트의 사건이나 행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거나, 혹은 느슨하게 연관된 행위자, 장소, 물체 등을 보여는 경우.

(예; 고액과외 보도에서 학원가를 오가는 일반 학생들을 보여주는 경우)

(4) 무관(Irrelevant)

영상텍스트가 언어텍스트의 내용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경우.

시청각 매체인 텔레비전 뉴스에서 자막은 언어텍스트의 성격을 지니면서 영상텍스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요소이다. 텔레비전 뉴스의 자막은 본 뉴스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기억을 돕는다. 그러나 본 뉴스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막, 즉 화면의 하단에 나타나는 스크롤 자막이나 롤 자막과 같은 '뉴스티커(news ticker)'는 인지욕구가 높은 수용자를 제외하고[15], 수용자의 본 뉴스에 대한 기억을 방해한다[16].

이러한 발견은 결국 영상텍스트의 '주제연관성' 정도가 수용자의 뉴스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추론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요약하면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현장성'과 '사실성'이 바탕이 되는 객관적 보도가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뉴스 제작 과정에서는 관례화된 영상과 편집기법에 의존하여 현실기반이 약한 일러스트레이션 화면이나 컴퓨터 그래픽 화면 그리고 사건을 상징하거나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로케이션 화면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텔레비전 영상이 '현장성'과 '사실성' 기반이 취약하여 뉴스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을 경우, 수용자의 뉴스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텔레비전 발전 과정 속에서 뉴스 영상의 구조적 요소와 주제연관성 정도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시대적 배경에 따라 뉴스영상의 구조적 요소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시대적 배경에 따라 뉴스영상의 주제연관성 정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MBC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한 1987년 2월 이후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방송된 뉴스를 대상으로 영상의 구조적 요소와 주제연관성 정도를 분석하였다.

가능한 한 시대적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한 가장 오래된 뉴스를 기준으로 체계적 무선표집방법을 통해 샘플링을 하였다.

즉, 1987년을 기점으로 2월 둘째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 5년 간격으로 각 연도별로 5일간의 평일 뉴스를 표본으로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뉴스는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으로 추출된 뉴스

구분	기간	아이템수	샷의 수
1987년	2/9-2/13	167	2,734
1992년	2/10-2/14	145	2,052
1997년	2/10-2/14	154	2,133
2002년	2/11-2/15	135	2,405
2007년	2/12-2/16	128	2,621
계		729	11,945

샘플로 추출된 기간 중 선거, 전쟁, 지진이나 해일 등 대형 재난 등이 집중 보도될 경우, 뉴스의 내용이라는 가외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내용분석에 앞서 샘플로 추출된 뉴스를 사전 검색한 결과, 이 기간 동안에는 선거, 전쟁, 재난 관련 보도가 없

음을 확인하였다.

표본으로 선정된 뉴스의 아이템 수는 총 729개 였으며, 이들 뉴스 아이템은 샷 단위로 분석되었다. 분석 대상이 된 샷의 수는 총 11,945 개였다.

뉴스의 앞부분에 방송되는 <오늘의 주요뉴스> 그리고 말미에 구분지어 방송되는 <오늘의 날씨>와 <스포츠뉴스>는 본 뉴스와 별개로 간주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앵커의 영상 또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첫 번째 종속변인인 '구조적 요소'는 이종수[10]의 분류를 바탕으로 '사운드바이트', '사건화면', '구성화면', '로케이션', '스탠드업', '자료화면' 등 6가지 유목으로 나누고, 현장성과 사실성의 가장 뚜렷한 지표가 되는 사운드바이트는 4가지 세부 유목으로 분류하여 코딩하였다.

두 번째 종속변인인 '주제연관성' 분석은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20개 내외의 샷으로 구성된 영상 전체를 하나의 분석단위로 코딩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의 기사에 포함된 많은 영상텍스트를 하나의 분석단위로 언어텍스트와 연관성 유무를 분석하는 방식은 개별 샷이 가지고 있는 내용상의 특성을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영상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샷'을 분석단위로 코딩하였다.

'주제연관성' 변인의 유목은 이지현[17]과 이종수[10]의 연구를 바탕으로 '직접연관', '축어적 연관', '간접연관', '무관' 등 4가지 세부유목으로 분류하고, 사건이 발생한 장소, 시간, 주행위자, 대상 중 2가지 이상이 뉴스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관련이 있을 경우, '직접 연관'으로, 1가지만 일치하거나 관련이 있을 경우, '간접 연관'으로, 그리고 1가지도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관'으로 분류하였으며, 그래픽이나 일러스트레이션 등으로 언어텍스트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그대로 표현해주는 경우에는 '축어적 연관'으로 분류하였다.

3. 코더간 신뢰도

구조적 요소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분석원 간의 판단 차이가 거의 없어 신뢰도 분석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주제연관성 분석에 있어서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밖에 없어서 코더간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방송전공 학생인 2명의 코더들은 연구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과정에서 코더간에 이견이 있는 영상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 판단을 조율하였고, 분석대상 25일치의 뉴스 중에서 3일치(12%)의 뉴스를 두 코더가 동시에 분석하여 주제연관성에 대한 코더간 신뢰도를 알아보았다.

홀스티(Holsti)의 신뢰도 공식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는 92%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다.

Ⅳ. 연구결과

1. 구조적요소 분석결과

텔레비전 뉴스 영상의 연대별 구조적 요소를 교차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 뉴스 영상의 연대별 구조적 요소

구조적 요소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2007년	계
사운드 바이트	공식 인터뷰	92 (3.4)	78 (3.8)	86 (4.0)	140 (5.8)	182 (6.9)	578 (4.8)
	비공식 인터뷰	38 (1.4)	41 (2.0)	21 (1.0)	36 (1.5)	35 (1.3)	171 (1.4)
	공식 발표	33 (1.2)	21 (1.0)	12 (0.6)	26 (1.1)	26 (1.0)	118 (1.0)
	현장음	48 (1.8)	21 (1.0)	26 (1.2)	12 (0.5)	36 (1.4)	143 (1.2)
	계	211 (7.7)	161 (7.8)	145 (6.8)	213 (8.9)	279 (10.6)	1,009 (8.4)
사건화면		2201 (80.5)	1606 (78.3)	1642 (77)	1859 (77.2)	2088 (79.7)	9,396 (78.7)
구성화면		29 (1.1)	74 (3.6)	117 (5.5)	115 (4.8)	94 (3.6)	429 (3.6)
로케이션		53 (1.9)	78 (3.8)	113 (5.3)	96 (4.0)	39 (1.5)	379 (3.2)
스탠드업		29 (1.1)	55 (2.7)	68 (3.2)	84 (3.5)	85 (3.2)	321 (2.7)
자료화면		211 (7.7)	78 (3.8)	48 (2.3)	38 (1.6)	36 (1.4)	411 (3.4)
계		2734 (100)	2,052 (100)	2133 (100)	2,405 (100)	2621 (100)	11,945 (100)

x^2=636.24, df=32, p<.001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1987년부터 2007년까지의 총 11,945개의 샷을 코딩한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한 것은 단연 사건화면(78.7%)이었다. 그 다음으로 사운드바이트(8.4%),구성화면(3.6%), 자료화면(3.4%), 로케이션 화면(3.2%), 스탠드업(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대별 구조적 요소의 비중을 살펴보면, 1987년에는 사건화면이 80.5%, 그리고 사운드바이트가 7.7%로 모두 88.2%가 현실기반성이 강한 화면이고 나머지 11.8%는 현실기반성이 약한 구성화면, 로케이션화면, 스탠드업, 자료화면 등으로 이루어져있었다.

1992년에는 사건화면이 78.3%, 사운드바이트가 7.8%로 모두 86.1%가 현실기반성이 강한 화면이고, 나머지 13.9%가 구성화면, 로케이션 화면 등 현실기반성이 약한 화면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997년에는 사건화면이 77%, 사운드바이트가 6.8%로 모두 83.8%가 현실기반성이 강한 화면이고 나머지 16.2%가 구성화면, 로케이션 화면 등 현실기반성이 약한 화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2년에는 사건화면이 77.2%, 사운드바이트가 8.9%로 모두 86.1%가 현실기반성이 강한 화면이며, 나머지 13.9%는 구성화면, 로케이션 화면 등 현실기반성이 약한 화면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사건화면이 79.7%, 사운드바이트가 10.6%로 모두 90.3%가 현실기반성이 강한 화면이며, 나머지 9.7%는 구성화면, 로케이션 화면 등 현실기반성이 약한 화면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따라서 연대별로 비교해보면, 1987년과 2007년에는 현실기반이 강한 화면이 약 90% 내외이며, 1992년과 2002년에는 86%, 그리고 1997년에는 83.8%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요소 중에서 사건 현장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는 사운드바이트의 경우에는, 1987년(3.4%), 1992년(3.8%), 1997년(4.0%), 2002년(5.8%), 2007년(6.9%)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현장성과 사실성 면에서 가장 취약한 그래픽화면, 일러스트레이션 화면과 같이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진 구성화면은 1987년에는 1.1%로 미미하게 나타났으나, 1992년에는 3.6%, 1997년에는 5.5%까지 증가하여 정점에 이르고, 그 이후부터는 2002년(4.8%), 2007년(3.6%)로 낮아지고 있었다.

현장성이 약한 로케이션 화면의 경우에도, 1987년에는 1.9%, 1992년 3.8%, 그리고 1997년에는 5.3%로 대폭 증가하였고, 그 이후 2002년(4.0%)과 2007년(1.5%)에는 다시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스탠드업의 경우, 1987년에 1.1%, 1992년 2.7%, 1997년 3.2%, 2002년 3.5%, 그리고 2007년에는 3.2%를 나타냈다.

자료화면의 경우, 1987년 7.7%, 1992년 3.8%, 1997년에는 2.3%, 2002년에는 1.6%, 2007년에는 1.4%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2. 주제연관성 분석결과

텔레비전 뉴스의 연대별 주제연관성 정도를 교차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표 3. 뉴스 영상의 연대별 주제연관성

구분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2007년	계
직접연관	2455 (89.8)	1769 (86.2)	1785 (83.7)	2102 (87.4)	2406 (91.8)	10,517 (88.1)
축어적연관	27 (1.0)	74 (3.6)	117 (5.5)	115 (4.8)	94 (3.6)	427 (3.6)
간접연관	252 (9.2)	205 (10)	224 (10.5)	186 (7.7)	117 (4.5)	984 (8.2)
무관	0 (0)	4 (0.2)	7 (0.3)	2 (0.1)	4 (0.2)	17 (0.1)
계	2734 (100)	2,052 (100)	2133 (100)	2,405 (100)	2621 (100)	11,945 (100)

x^2=274.13, df=12, p<.001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뉴스화면의 주제연관성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으며, 총 11,945개의 샷 중에서 '직접연관' 화면이 88.1%로 가장 많았고, 축어적 연관이 3.6%, 간접 연관 8.2%, 무관 0.1% 등으로 나타났다.

연대별 주제연관성 비율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건화면과 사운드바이트 등으로 이루어지는 '직접연관'의 경우 1987년에는 89.8%, 1992년 86.2%, 1997년에는 83.7%, 2002년 87.4%, 그리고 2007년에는 91.8%를 나타냈다.

그래픽화면, 일러스트레이션 화면 등 대부분 구성화

면으로 이루어진 '축어적 연관' 영상은 1987년에 1.0%, 1992년 3.6%, 1997년 5.5%, 2002년 4.8%, 2007년 3.6%로 나타남으로써 각 기간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1997년까지 증가하고 그 이후부터는 하강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로케이션, 스탠드업 화면, 자료화면 등으로 이루어지는 '간접연관' 영상은 1987년 9.2%, 1992년 10.%, 1997년 10.5%, 2002년 7.7%, 2007년 4.5%로 1987년부터 1997년까지는 비교적 10%대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현장성'과 '사실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뉴스 영상의 구조적 요소와 주제 연관성이 시대적 배경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1987년부터 2007년까지 MBC뉴스데스크에 방송된 총 729개의 뉴스 아이템의 11,945개의 샷을 분석하였다.

연대별 구조적 요소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1987년과 2007년에는 현실기반성이 강한 화면이 약 90%, 1992년과 2002년에는 약 86%, 그리고 1997년에는 83.8%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처럼 현실기반성이 강한 화면의 전반적인 비율에 뚜렷한 추세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건 현장을 가장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사운드바이트의 경우에는 1997년(6.8%)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그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5공화국 시대인 1987년에는 북한관련 뉴스를 중심으로 한 자료화면(7.7%)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운드바이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1997년의 사운드바이트 화면의 비중이 1987년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1997년 뉴스에서는 '현장성'과 '사실성'을 중심으로 한 뉴스 제작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뉴스가 '현장성'과 '사실성'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였다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그래픽 화면, 일러스트레이션 화면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5.5%), 건축물이나 깃발 등을 통해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로케이션 화면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났다(5.3%)는 점에 있다.

그러나 현장성이 매우 강한 사운드바이트 중에서 '공식인터뷰'의 비중이 1987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공식인터뷰는 '현장성', '사실성' 제고와 함께 시청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18]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비공식 인터뷰는 공식인터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체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를 유지하고 있다. 비공식 인터뷰의 대부분이 사회고발성 영상임을 고려할 때, 이는 텔레비전 매체가 언론의 사회비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고발성 뉴스의 비중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래픽 화면, 일러스트레이션 화면 등과 같은 구성화면은 1987년부터 1997까지는 급격히 증가하고, 그 이후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것은 1987년에 컴퓨터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등이 사용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는 제작인력의 부족, 그리고 기술적인 제약 등으로 사용이 많지 않았으며, 그 이후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인해 1997년까지 증가하다가 2002년부터는 사실성과 현장성에 기초하지 않은 영상화면에 대한 뉴스 제작진들의 경계감이 작용하여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스탠드업의 비중에 1987년과 그 이후의 비중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1987년에는 기자가 화면에 직접 나타나는 뉴스 포맷이 드물었으며, 그 이후에는 기자의 스탠드업 뉴스 포맷이 일반화되어, 단신 이외의 저녁뉴스에서는 대부분의 뉴스에 기자가 화면에 직접 등장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스탠드업이 많다는 것은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였다는 '성실성'과 '신뢰감'을 주기 위한 노력의 표현[18]으로 볼 수 있으며, 1990년대 이후 본격 사용되기 시작했다.

또한 자료화면은 1987년(7.7%)에서 2007년(1.4%)까

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 중에서 1987년에 자료화면의 비중이 특별히 높았던 것은 5공화국 시절인 1987년에 북한관련 뉴스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1997년을 거쳐 2007년에 이르면서 자료화면의 사용은 확연하게 줄어드는데, 이는 자료화면이 보도의 현장성과 사실성에 있어서 대단히 소극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뉴스 제작진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대별 주제연관성 비율을 살펴보면, 직접연관 화면이 1987년부터 1997년까지는 줄어들고 이후부터는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으며, 2007년에는 91.8%에 이르는 높은 직접연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1997년에는 사운드바이트, 사건화면 등 현장성과 사실성을 바탕으로 하는 영상 표현에 상대적으로 충실하지 못했으며, 그 이후부터는 현장성과 사실성을 중시하는 영상 표현에 대한 뉴스 제작진의 노력이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축어적 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7년부터 1997년까지 급격히 증가하고, 그 이후부터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것은 1987년에는 그래픽과 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였고, 컴퓨터 그래픽 제작인력과 기술적 한계 때문에 활발하게 사용되지 못했으나, 충분한 인력과 한층 높아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1997년까지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었으며, 그리고 그 이후부터 2007년까지는 이들의 사용을 절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그래픽이나 일러스트레이션 화면의 경우, '설명성'은 좋지만, 언론보도의 중요한 기능중 하나인 '사실성'과 '현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뉴스 제작진들이 스스로 자제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간접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7년부터 1997년까지는 약 10% 정도를 유지하고, 그 이후부터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컴퓨터 그래픽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이루어진 구성화면, 로케이션 화면, 그리고 자료화면이 1997년부터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현상도 결국은 보도화면의 현장성과 사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작진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987년과 2007년에는 1992년과 2002년에 비해 '현장성'과 '사실성'을 충실히 반영한 '사운드바이트'와 '사건화면', 그리고 '직접연관' 화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1997년에는 이들 요소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현장성'과 '사실성' 측면에서 취약한 '로케이션 화면', '구성화면' '자료화면', 그리고 '간접연관'과 '축어적 연관' 화면의 비중이 크게 나타남으로써, 현실기반이 강한 뉴스 보도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장성이 강한 '사운드바이트'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현장성이 약한 '자료화면'이 지속적인 감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텔레비전 뉴스의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 '사운드바이트'와 '사건화면' 그리고 주제와 연관성이 강한 '직접연관' 화면 등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뉴스 제작진에 의해서 관례화된 샷으로 미리 구성되거나, 일러스트레이션 화면, 그래픽 화면 등으로 현장에서 취재하지 못한 영상을 재현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로서의 '현장성'과 '사실성'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텔레비전 뉴스에 관한 그 동안의 연구가 동시대의 뉴스를 대상으로 한 횡적 연구에 집중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뉴스의 변화를 반영하는 종적 연구가 부족하였으며, 텔레비전 뉴스 보도에서 사운드바이트의 길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할린(Halin)[8]의 주장에 대해, 국내 텔레비전 뉴스보도에서는 영상의 구조적요소와 주제연관성 정도가 어떤 경향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작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구조적 요소와 주제연관성의 비중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내용연구로써 다음과 같은 3가지 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시대적 배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1970년 10월 5일 첫 방송을 시작하여,

1976년에 정부의 외래어 순화정책에 따라서 타이틀이 '뉴스의 현장'으로 바뀌었다가, 1980년 12월 22일 컬러 방송을 시작하면서 현재의 '뉴스데스크'로 다시 본래의 명칭을 되찾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뉴스이며, 1977년에 시작된 'KBS 9시 뉴스'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내 최장수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방송이 시작된 1970년대 초에는 텔레비전 녹화장치가 충분하지 못했고, 방송사에 한 두 대 정도 밖에 없던 1인치 녹화장치 '헤리컬 VTR'에 사용되는 녹화테이프가 대단히 고가였으며, 그 부피 또한 매우 커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들을 일일이 녹화, 보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방송사에서도 뉴스를 자료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절실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1987년 이전의 뉴스는 특집 뉴스 이외에는 보관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일 매일의 뉴스가 영상자료로 보관되기 시작한 1987년 2월 이후의 뉴스만을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종적인 연구로서 충분히 오래된 뉴스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둘째, 좀 더 많은 뉴스영상을 분석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오래된 뉴스영상인 1987년 이후의 뉴스를 대상으로 5년 간격으로 체계적 무선표집 방법을 통해 각 연도별로 5일간, 총 25일간의 평일뉴스를 표본으로 추출하고, 샷을 분석단위로 코딩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뉴스는 총 11,945개의 샷으로, 3차례의 교육과 토론을 거친 2명의 코더들에 의해 3주일간 코딩작업을 실시하여 적지 않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여년간의 엄청난 분량의 뉴스에 비하면 추출된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특정 방송사에 국한된 특정 뉴스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공영방송, 민영방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송사의 '경영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아침뉴스, 저녁뉴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뉴스 제작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MBC뉴스데스크라는 특정 방송사의 특정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 결과를 국내 뉴스에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특정 방송사의 특정 뉴스 프로그램에 국한시키지 말고, 지상파 방송 3사의 보다 많은 뉴스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함으로써, '방송사의 경영형태', '프로그램' 등과 같은 새로운 변인이 뉴스의 구조적 요소와 주제연관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한국언론재단, "2004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제12회 미디어영향과 신뢰도 조사", 한국언론재단, 2004.

[2] 백선기, *텔레비전 영상기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3] 박덕춘, "텔레비전 뉴스의 영상의제 설정", 한국콘텐츠학회, 11권, 1호, pp.72-82, 2011.

[4] J. T. Cadwell, *Digital Packaging / Industrial Strength Semiotics*, "Televisuality: Style, Crisis, and Authority in American Television,"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95.

[5] A. N. Crigler and W. R. Neuman, "Interpreting Visual versus Audio Messages in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Vol.44, No.4, 1994(8).

[6] D. L. Altheide, *The Format of TV Network News. in Vidal-Beneyto and Dahlgren*(eds.), The Focused Screen, 1987.

[7] M. Griffin, "Looking at TV News; Strategies for research", Communications, Vol.13, pp.121-141, 1992.

[8] M. Griffin, "Looking at TV News; Strategies for research", Communications, Vol.13, pp.121-141, 1992.

[9] D. Hallin, "Sound-bite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Vol.42, No.2, 1992.

[10] 이종수, "텔레비전 뉴스 영상구성", 한국방송학

보, 12권, 1999.

[11] D. A. Graber, *Processing the news; How People tame the information tide* (2nd ed.), New York: Longman, 1988.

[12] E. H. Katz and P. Parness, "Remembering the news-What the picture adds to recall," Journalism Quarterly, 54, pp.231-9, 1977.

[13] 강명구, "한국 TV뉴스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분석," 한국언론연구원, 1990.

[14] 도정일, *영상시대의 문학의 힘과 가능성*, 현대문학, 1998.

[15] 강태성, "뉴스주목도 및 인지욕구와의 상호작용성 효과를 중심으로 본 뉴스티커의 효과," 한국방송학보, 23-6, pp.7-46, 2009.

[16] 이혜미, 장정우, 정용국, "텔레비전 뉴스의 형식적 특성이 시청자의 기억에 미치는 영향: 뉴스 길이와 티커의 영향", 언론과학연구, 9권, 2호, pp.425-460, 2009.

[17] 이지현, 고영철, "지역방송 TV뉴스 영상구성 관행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 지상파TV뉴스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0권, 1호, pp.202-241, 2010.

[18] 김문환, *TV뉴스의 이론과 제작*, 다인미디어, 1999.

저 자 소 개

박 덕 춘(Dug-Chun Park) 정회원

- 1987년 2월 :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공학사)
- 2001년 8월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언론학 석사)
- 2010년 8월 :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언론학 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동서대학교 영상매스컴학부 교수

<관심분야> : 텔레비전, 미디어효과, 영화, 영상